

나폴레옹의 기병전술에 관한 연구

주 정 율*

1. 머리말
2. 나폴레옹시대 프랑스 기병의 종류
3. 나폴레옹의 기병운용 방안
4. 주요 전투에서의 기병운용과 승패에 미친 영향
5. 맺음말

1. 머리말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류역사에 일대변혁이었다. 자유, 평등의 이념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근대사회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전쟁사에 전환점이 되었다. 나폴레옹은 기동전과 섬멸전이라는 작전개념¹⁾을 중심으로 후세사람들이 언급한 5대 작전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 1) 군사적 천재로 칭송받고 있는 나폴레옹의 주요 전략은 기동전략과 섬멸전략으로 구분된다. 혁명의 기운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것을 두려워 한 유럽의 군주국들은 대불동맹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였다. 적에게 포위된 프랑스는 주변국들이 힘을 합치기 전에 신속하게 적들

원칙²⁾, 산개전술, 사단 및 군단편성, 포병화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전쟁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전략적, 전술적 업적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³⁾

이에 필자는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된 전쟁사에서 오랜 시간 전장의 주역이었던 기병을 중심으로 나폴레옹의 전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동력과 충격력의 특성을 이용한 기병의 대규모 돌격은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쟁취하는데 매우 훌륭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정찰(reconnaissance), 추격(pursuit)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지휘관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병종이었다. 반면 기병은 방어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돌격 이후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보병과 달리 말이라는 동물을 이용해 야 하며 개인의 전투기량이 단기간에 숙달될 수 없는 한계⁴⁾ 때문에

을 각개격파하고 무너진 군사력이 쉽게 재건될 수 없는 전략을 세워야 하였다. 이에 나폴레옹은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서 결전을 하기 위해 주변국 군대보다 신속하게 기동하고 기습을 통해 적을 섬멸하고자 하였다(이용재, 「아우스터리츠의 태양」, 『서양사연구』 제35호, 2006, 50~55쪽.; Claus Telp,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Art*(New York: Frank Cass, 2005), pp.56~58). 따라서 나폴레옹은 기동전략과 섬멸전략을 함께 구사하기 위해 기존 보병중심의 부대보다는 적에 대한 포위, 돌파, 추격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기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로이텐전투(Battle of Leuthen, 1757)에서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 1712~1786)가 기병으로 적을 기만하고 적 예비대를 공격해 승리를 거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을 것이다(Roman Jarymowycz, *Cavalry from Hoof to Track*(West Virginia: Stackpde Books, 2009), pp.64~69).

- 2) 나폴레옹은 전쟁의 원칙에 대해 종종 말로써 설명하였지만 실제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 5대 작전원칙은 후세사람들이 그의 전역을 보고 연구한 결과이다. ①공격에 대한 완벽한 믿음(invariable reliance on the offensive) ②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동의 믿음(trust in speed to economize time) ③전략적 기습의 효과(effect strategic surprisals) ④공격의 결정적 지점에 대한 군사력의 압도적인 집중(concentrating superiority of force on the battlefield, at the decisive point of attack) ⑤병참선에 대한 보호(carefully thought out protective system)(J.F.C. Fuller, *The Conduct of War 1789~1961*(New York: Da Capo Press, 1992), pp.48~49.).
- 3) 기존연구는 나폴레옹의 전략사상, 군사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서정복, 「나폴레옹 전투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제국시대를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21집, 2009, 117~149쪽.; 이정완,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군사전략 사상」, 『군사논단』 제10호, 1997, 266~279쪽.).
- 4) 숙련된 기병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병 훈련은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기병훈련은 매우 어려웠는데 웰링턴(Wellington, 1769~1852)은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기병의 개인과 공격대형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짜증나는 일(tedious)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전투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힘든 병종이었다. 따라서 전쟁사에서 기병을 완벽히 운용한 지휘관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⁵⁾ 더욱이 나폴레옹이 등장한 18세기는 화약무기 발달로 기병이 갖는 충격력이 저하되어 유럽 내 각국에서는 기병이 쇠퇴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기병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⁶⁾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 기병의 양적 규모와 질적 능력은 유럽에서 훌륭한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 기병이 중세 이후 근대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툴롱전투(Battle of Toulon, 1793)⁷⁾에서 사령관으로 취임하고 혁명정부에 가담하면서 26개의 기병연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능력위주의 기병장교 선발⁸⁾, 기병 조직의 개편⁹⁾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프랑스 기병을 유럽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경험이 필요하다. 전투에서 기병이 유용하려면 기병 훈련보다 좋은 것은 없고 불충하게 훈련된 기병보다 값비싸고 쓸모없는 것도 없다.”(Philip J. Haythornthwaite, *Napoleonic Cavalry*(London: Cassell, 2002), p.26.).

- 5) 러일전쟁에서 기병여단을 이끈 일본 기병장교 아키야마 요시후루가 프랑스에서 유학 당시 기병교관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역사상 기병의 특성을 알고 정확히 운용한 사람은 칭기즈칸, 프리드리히 2세, 나폴레옹, 프로이센의 몰트케 밖에 없다”(나카자토 유키, 이규원 역, 『전쟁 천재들의 전술』 들녘, 2006, 24쪽.).
- 6)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기병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다음 두 가지 구술에서 보여진다. 전투 현장에서 한 장군이 “대규모 기병의 운용법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나폴레옹은 “만약 방어전투에서 적군 기병을 파괴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세인트헬레나(St. Helena)에서 그는 “기병 없이 어떠한 전투의 결과가 없다”라고 지난 전투들을 회고하였다(John Ellis, *Cavalry*(Somerset: WestBridge Books, 1978), pp.138~139.).
- 7) 1793년 12월 19일 혁명군의 툴롱 탈환작전 성공으로 인해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그해 장군으로 진급하였다(David Chandler, *Dictionary of the Napoleonic Wars*(London : Arms and Armour Press, 1979), pp.445~447.).
- 8) 혁명 전 프랑스 기병은 귀족가문의 자제만이 복무할 수 있었다. 혁명 후 귀족장교가 모두 추방되고 숙련된 기병장교가 부족하자 나폴레옹은 신분에 대한 구분없이 능력에 따라 장교를 임관 및 진급시켰다(Robert B. Bruce, Iain Dickie, Kevin Kiley, *Fighting Techniques of the Napoleonic Age 1792~1815*(London: Amber Books, 2008), p.72.). 기병 장교단의 강화가 프랑스 기병의 전투력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 9) 나폴레옹은 6천 명에서 9천 명 수준의 보병사단을 편성하면서 보병사단에 소속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기병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대규모로 기병을 운용하기 위해 기병군(사)단을 창설하였다. 전자의 조직에는 후술하게 될 輕기병위주로 편성하고 후자의 조직에는 中

내 다른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병으로 성장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기병을 나폴레옹전쟁(1805~1815) 기간 동안 주요 전투 및 전역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원동력으로 만들었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나폴레옹이 수행한 전투에서 그가 기병을 어떻게 운용하였으며 전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기병운용에 대한 나폴레옹의 군사적 업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기병 병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나폴레옹의 기병운용을 포함한 유럽 근대시기 기병에 대한 이후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나폴레옹시대 프랑스 기병의 종류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당시 유럽 내 타국의 기병은 중기병(heavy cavalry), 중기병(medium cavalry), 輕기병(light cavalry) 세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프랑스 기병은 輕기병에서 랜스기병(lance cavalry)을 따로 분류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¹⁰⁾ 3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언어적,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전쟁수행에 관한 원칙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¹¹⁾ 그가 구상한 전투의 전체적인 모습에서의 기병운용과 구술로 남겨진 기병운용을 통해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기병전술의 핵심을 추론하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직접 수행한 주요 전투에서의 기병운용과 3장에서 추론한 기병운용의 핵심을 비교분석해 기병이 전투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병과 중기병을 편성하였다(버나드 로 몽고메리, 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 책세상, 2004, 590~591쪽.).

1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나폴레옹은 언어적 문제(코르시카인으로 태어나 모국어가 이탈리아어였기 때문에 완벽한 프랑스어 사용의 어려움), 정치적 문제(자신과 같은 군사적 천재의 등장으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 등으로 그가 구상하고 수행한 전쟁에 대한 원칙을 글로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나폴레옹이 남긴 주요 표현은 그의 주변에 항상 대기하고 있던 5명의 비서관 등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의 마지막 유배지인 세인트헬레나에서 그가 구술한 것이 전부이었다(나폴레옹, 데이비드 G. 찬들러 편, 원태재 역, 『나폴레옹의 전쟁 금언』, 책세상, 1998, 13~15쪽.).

2. 나폴레옹시대 프랑스 기병의 종류

프랑스 혁명 직전 프랑스군에서 기병의 역할은 미미하였고¹²⁾ 모든 기병대는 장갑이 없는 용기병(Dragoon)만으로 편성되어 있었다.¹³⁾ 그러나 혁명전쟁¹⁴⁾이 시작되면서 프랑스 혁명군은 기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병대 증강을 꾀하였고 나폴레옹은 마렙고전투(Battle of Marengo, 1800)에서 승리할 때 기병여단의 활약¹⁵⁾을 보고 프랑스군 기병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당시 프랑스 기병의 종류에는 크게 중기병, 中기병, 輕기병, 랜스기병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¹⁶⁾

12) Ellis, op. cit., p.138.

13) 16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는 프랑스군에 다음 설명하게 될 다양한 종류의 기병이 존재하였다. 1558년에 총기병(carabin)이 생겨났고 용기병은 앙리 2세(Henri II, 1519~1559)때 창설되었다. 그리고 1693년 흉갑기병(cuirassiers)이 조직되었다. 하지만 화약무기 발달로 전장에서 기병의 전술적응용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혁명 직전에는 기병의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최갑수 외 9명,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162~169쪽).

14) 1792년 혁명사상이 전파될 것으로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동맹을 결성하였고 1793년 영국 수상 피트(William Pitt, 1759~1806)에 의해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네덜란드,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이 1차 대불동맹을 결성하여 프랑스를 공격하였다(Herold J. Chrestopher, *The Age of Napoleon*(Maryland: American Heritage Publishing, 1963), pp.49~50).

15) 마렙고 전투에서 켈레르만(Francois Kellermann, 1770~1835)이 오스트리아군 6,000명의 측면으로 기병 400명을 돌격시켜 승리의 전환점이 되었다(Ellis, op. cit., p.140).

16) 중기병, 中기병, 輕기병 구분하는 기준과 종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통상 기병이 착용하는 장갑과 무기, 말의 크기에 따라 기병의 유형이 구분된다고 하나 필자의 판단은 임무유형에 따라 구분된다고 본다. Haythornthwaite, op. cit., pp.17~18. 예를 들어 輕기병은 정찰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중기병은 돌파, 돌격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말의 크기와 착용하는 장비가 달라졌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기병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랜스기병을 輕기병의 한 종류로 보지 않고 따로 구분한 이유는 랜스기병이 기존 輕기병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Vuksic, Z. Grbasic, *Cavalry: The history of a Fighting Elite*(London: Cassell, 1993), p.31).

1) 重기병

重기병의 역사는 로마 멸망 이후 중세유럽을 지배했던 철갑기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기병은 무거운 갑옷을 자신의 몸과 말에 두르고 돌격하여 충격력으로 보병방진을 무력화시키고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크레시전투(Battle of Crecy, 1348)에서 영국 장궁병대에 프랑스 기사단의 돌격이 무력화되고¹⁷⁾ 화약무기 발달과 함께 전통적 기병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18세기 이후부터는 重기병을 전장에서 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프랑스에서 重기병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네(Michel Ney, 1769~1815)¹⁸⁾와 켈레르만은 나폴레옹에게 장갑으로 무장된 重기병 창설을 건의하였고 혁명전쟁을 경험한 나폴레옹의 의지에 따라 프랑스 육군에 흉갑기병부대를 창설하였다.¹⁹⁾ 1799년 프랑스 육군이 보유한 25개의 기병 연대 중 흉갑을 착용한 것은 1개 연대에 불과하였지만 1802년에는 12개의 연대가 흉갑기병으로 증강되었다.²⁰⁾ 이후 흉갑기병대는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전장을 지배하고 프랑스군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변화하였다. 흉갑기병은 전투시 갑옷이 주는 불편함보다는 기병의 몸을 보호하는 방어적 이점을 살리기 위해 철로 된 흉갑과 헬멧을 앞가슴과 등, 머리에 착용하여 적과 교전시 보호²¹⁾를 받았지만 팔은 행동의 자유를 위해 흉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브레(Sabre)²²⁾를

17) 크레시전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나카자토 유키, 앞의 책, 87~104쪽).

18) 네는 1787년 후사르기병대에 입대하여 1789년 장교로 입관하였다. 1796년에는 장군, 1804년에는 원수로 진급하였다.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주요 지휘관으로 활약하여 명성을 떨쳤으나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기병의 우발적인 공격과 비이성적 행동으로 프랑스군의 패배를 초래하였다. Chandler, op. cit., pp.312~315.

19) 당시 유럽 내 군주국에는 장갑으로 무장한 重기병이 존재하였지만 프랑스에는 重기병이 존재하지 않았다(Jarymowycz, op. cit., p.72).

20) 리처드 홀즈, 김지원 역, 『나폴레옹의 영광』 청아, 2006, 36쪽

21) 흉갑은 당시 표준 화약무기의 탄, 적군 기병의 칼로부터 기병의 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었다(Bruce et. al., op. cit., p.99).

22) 사브레의 종류는 적을 공격하는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 적을 벨(slash, cut)경우에는 칼날에 곡선이 있고 자루보다 칼날이 무겁다. 둘째, 적을 찌를(thrust) 경우

주로 소지하였으며 권총과 카빈(carbine)은 사브레에 비해 부차적인 무기로 간주되었다.²³⁾ 그 이유는 돌격전술에 주로 운용되는 흉갑기병이 적에게 돌격을 할 때 권총이나 카빈은 소지할 경우 1차 사격 이후 재장전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말 위에서 재장전이 어려웠고 적과의 근접전에서 사브레로 무장하는 것이 살상력을 더 극대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군 중기병에는 흉갑기병 이외에도 황제 호위를 전담으로 하는 척탄기병(Grenadier a Cheval)이 있었다. 1676년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가 보병연대 인원 중 척탄병(grenadier) 250명을 선발하여 근위기병연대를 창설한 것이 시작이었으며 그들의 주요 임무는 황제에 대한 호위 및 아군 보병, 기병 돌격시에 최선두에서 돌격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혁명전쟁이 끝날 무렵 행정부 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근위보병·기병부대(Foot and Mounted Grenadiers of the Consular Guard)라는 2개의 호위부대를 창설하였으며 1804년 황제가 되었을 때 척탄기병의 이름을 근위기병(Grenadier a Cheval de la Garde Imperiale)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편성은 4개의 기병대대로 구성된 1개 연대로 1,018명이었으며 황제 근위기병인 만큼 기병의 키는 최소 176cm 이상 이었고, 상위계급 장교의 추천이 있어야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엘리트부대였다. 근위기병은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주요 전역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⁴⁾

에는 칼날이 곧게 뻗어 있고 칼날보다 자루가 더 무겁다. 전자는 輕기병, 후자는 重기병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사브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aythornthwaite, op. cit., pp.29~41. 영국왕립 무기박물관 공동제작, 정병선, 이민아 역, 『무기』, 사이언스북스, 2010, 180~184쪽.).

23) Bruce et. al., op. cit., p.98.

24) Vuksic et. al., op. cit., p.182.

2) 中기병

중기병의 대표적인 형태는 용기병²⁵⁾이다. 용기병은 17세기 화약무기의 발달과 함께 개인이 소지 가능한 화기가 등장하면서부터 편성되었으며 적과 전투할 때는 말에서 내려 개인용 화기를 이용하여 전투에 임하고 이동할 때는 말을 타는 보병과 기병의 혼합된 형태였다.²⁶⁾ 따라서 그들은 중기병과 輕기병의 중간 형태로 전장에서 중기병과 輕기병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의 특성으로 인해 중기병처럼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임무는 부여받지 않았다. 1791년 18개였던 용기병연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 30개로 확장되었지만 1811년 이 중 6개 연대가 창기병으로 전환되면서 용기병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²⁷⁾ 용기병의 복장은 표범가죽 터번을 두른 황동투구를 쓰고 초록색 제복을 입었으며 기병대 내에 말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모든 부대원이 말을 타는 것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도보로 전쟁에 참가하여 말이 생기면 타고 전투에 참가하였다.²⁸⁾ 나폴레옹은 전쟁기간 동안 용기병을 자신의 주전장인 중부유럽보다는 주로 에스파냐전역에서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베리아반도가 건조하며 토양이 매우 거칠어 프랑스 중기병이 활약하기에 부적합²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흉갑기병을 무장하기 위한 군마가 부족해짐에 따라 용기병이 중기병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도 하였다.³⁰⁾

25) 용기병이라는 명칭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비잔티움이나 카롤링왕국에서 사용되었던 용문양의 패넛트(깃발)를 용기병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드래군이라는 소총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유래했다는 것이다(Ibid, p.122).

26) Haythornthwaite, op. cit., p.19.

27) 리처드 홉스, 앞의 책, 36쪽

28) 위의 책, 36쪽

29) 중기병은 장갑무게로 인해 中, 輕기병들에 비해 기동속도가 느렸고 이베리아 반도와 같은 거친 토양에서는 속력을 내기가 더 어려웠다. 따라서, 나폴레옹은 중기병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용기병을 에스파냐전역에서 주로 운용하였다(Ellis, op. cit., p.139).

30) Haythornthwaite, op. cit., p.19.

3) 輕기병

정찰, 전초전, 추격, 적 병참선에 대한 습격, 교량 등 중요 지역을 확보하는 등에 임무를 수행하는 輕기병은 무장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그 중 프랑스 輕기병을 대표하는 것은 후사르(hussar), 輕기병(chevau-leger)이 있다. 후사르는 헝가리 輕기병(Hungarian light horse)이 오스트리아 황제군에 복무하면서 생겨났다. 이후 유럽 내 각국이 이를 모방하면서 퍼져나갔고 프랑스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스 내에서 후사르 기병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791년부터 1795년까지 혁명정부가 혁명전쟁에 대비하고자 13개의 후사르 기병대를 창설하면서 부터였다. 그들의 복장은 매우 화려했으며³¹⁾ 무장은 카빈과 가벼운 사브레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찰임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규모 교전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활약상은 예나전투(Battle of Jena, 1806)에서 프로이센군이 패배하고 후퇴하자 나폴레옹은 추격을 지시하였는데 후사르 제5, 제7연대가 여단으로 편성되어 프로이센군을 추격하였다. 이때 22일 동안 하루 평균 50km를 질주하여 프로이센이군 6,000명을 생포하고 약포 160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³²⁾

輕기병(chevau-leger)은 프랑스가 러시아 공격을 준비하던 시기 6개의 용기병연대를 창기병으로 개편하면서 탄생하였다.³³⁾ 이는 러시아군에 소속된 코사크(Cossack)기병³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넓은 러시아 지역을 사전에 정찰하여 重기병을 보호하고자 한 나폴레옹의 전략적 판단

31) 그들의 복장은 헝가리 輕기병의 스타일을 따라 하였다. 주로 여성용 긴 옷(pelisse)이나 여성용 망토(dolman), 모피모자(fur cap)를 착용하였다(ibid., pp.20~21).

32) Vuksic et. al., op. cit., p.192.

33) 리처드 홉스, 앞의 책, 36쪽

34) 코사크 기병은 러시아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말을 사용하였으며 적 정규군 기병과 상대할 경우에는 전투력이 미약하였으나 낙오병, 적 정찰병에게는 전투력이 매우 높았다. 이에 코사크 기병은 수색 및 정찰, 소규모 교전(전초전) 등에 주로 운용되었고 특히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전역 실패 이후 프랑스군의 대후퇴시 프랑스군을 끊임없이 습격하고 추격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그레고리 프리몬-반즈, 토드피셔, 박근형 역, 『나폴레옹 전쟁』, 플래닛미디어, 2009, 198쪽.).

이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창설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역 당시에 병사 대부분은 신병이었고 초급장교들 또한 새롭게 임관한 기병이었다. 하지만 상급지휘관 대부분이 전투 및 지휘경험이 풍부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용기병부대를 기반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輕기병은 복장과 무장에서 용기병과 매우 유사하였으나 다른 점은 무장에 있어 검(sword)을 장비하고 있었으며 일부 병사의 경우 랜스를 착용하였다.

4) 랜스기병

기병의 전통적 무기였던 랜스는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사브레가 기병의 근접전에서 주요한 무기로 변화하였다.³⁵⁾ 그러나 후술하게 될 폴란드 랜스기병 등 일부만이 명맥을 유지하였고 나폴레옹이 랜스기병의 전술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이를 적극 운용하게 되면서 유럽 내 전장에서 랜스기병이 다시 등장하였다. 나폴레옹이 랜스기병을 중용한 이유는 첫째, 고대로부터 기병을 방어하기 위한 보병부대의 노력은 방진 형태의 변화와 무기의 발달로 이어져 왔다. 반대로 기병은 보병과 방진에 대한 돌파를 위해 노력했는데 랜스가 보병과 방진에 대한 기병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 주었다. 사브레보다 파괴력이 강한 랜스가³⁶⁾ 기병

35) lance와 spear 모두 창으로 번역되나(모양과 공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다 창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여기서 설명하는 랜스기병은 lance로 무장한 기병만을 의미한다. 랜스의 길이가 약 4m 내외이고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훈련과정이 길었고 훈련이 부족했던 랜스기병은 랜스를 전투 중에 자주 떨어뜨렸다. 그리고 전투 중 적이 랜스 거리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적을 공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브레가 더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화약무기가 발달하면서부터 랜스기병의 가치는 하락해 “7년전쟁(1756~1763)” 이후에는 여기서 설명하는 폴란드 기병과 코사크 기병 정도만이 남아 있었다(Jarymowycz, op. cit., p.60).

36) 방진을 형성하고 있는 보병을 돌파할 때 베거나 찌르는 방식의 사브레(길이: 0.7~1.2m, 무게: 1.7~2.4kg)보다는 돌격해 오는 힘을 이용해 밀고 나가는 방식의 랜스(길이: 3.6~4.2m, 무게: 3.5~4kg)가 더 효과적이었다(이치카와 사다하루, 이명환 역, 『무기와 방어구』, 들녘, 2000, 21~25쪽, 167~168쪽.; 이치카와 사다하루, 이명환 역, 『무기사전』, 들녘, 2004, 162~163쪽.).

돌격 시 보병을 공격하는데 유용하였다.³⁷⁾ 둘째, 랜스기병은 輕기병의 장점인 속력과 重기병의 장점인 충격력을 모두 갖고 있는 기병대였다. 이러한 사실이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재발견되면서 1813년 이후 프랑스 적국인 오스트리아³⁸⁾, 러시아에서도 랜스기병을 증강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하게 되었고 랜스기병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영국조차도³⁹⁾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랜스기병대를 창설하여 전장에서 운용하였다. 셋째, 나폴레옹이 1807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입성하면서 폴란드 랜스기병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신의 근위대(Imperial Guard)에 폴란드 랜스기병을 포함시켰으며 야전군 기병대에 폴란드 복장을 한 랜스기병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폴란드 기병들은 1808년 에스파냐전역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⁴⁰⁾ 당시 에스파냐 전역에 참가한 영국기병은 폴란드 랜스기병의 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⁴¹⁾

37) 랜스기병을 활용한 가장 훌륭한 전투는 드레스덴전투(Battle of Dresden, 1813)에서 나폴레옹이 랜스기병대를 출격시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방진을 공격해 보병들을 무참히 짓밟고 병참시설을 파괴하였다(Bruce et. al., op. cit., p.118).

38) 오스트리아 랜스기병을 지칭하는 단어는 “Uhlan”이다. 이 용어는 “젊은이”라는 의미의 터키어 Oglan에서 유래되었는데 14세기 셀주크투르크에서 처음 등장하여 16세기에는 술탄의 호위병이었으며 이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는 輕기병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791년 오스트리아는 사단 중 일부를 폴란드 방식에 따라 Uhlan연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연대는 4개의 기병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2개 대대는 랜스로 무장하였고 나머지 2개 대대는 카빈으로 무장하였다. 1789년 제2연대를 창설하였고 1801년에는 3번째 연대, 1813년에는 4번째 연대를 창설하였다(Vuksic, et. al., op. cit., p.184).

39) 각주 37번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랜스는 다루기가 쉽지 않아 훈련소요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영국 내 기병전문가들은 랜스기병 양성을 꺼려하였다(Bruce et. al., op. cit., pp.117~118).

40)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의 3차(1772, 1793, 1795)에 걸친 분할정책으로 멸망한 폴란드는 나폴레옹의 공격으로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3개 국가가 패배하자 나폴레옹에게 제한적 독립을 인정받고 바르샤바공국으로 재탄생하였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지원하기 위해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포함된 폴란드 기병을 에스파냐 전역에 참가시켰다. 폴란드 멸망과정, 바르샤바공국의 성립, 프랑스군에 폴란드군 편입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이상철, 『유럽의 중원 폴란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117~145쪽.)

41) Jarymowycz, op. cit., p.75.

“그들은 매우 컸고 말을 잘 탔다. 깃발을 붙인 긴 창으로 무장한 그들에 대해 우리의 말들은 매우 놀랐고 우리 기병들은 말을 진정시키거나 도망가기 바빴다. 그들은 완벽한 야만인(barbarians)이었고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3. 나폴레옹의 기병운용 방안

앞서 설명하였듯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쟁수행에 관한 원칙에 대해 글로써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병운용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나폴레옹이 구상한 이상적인 전투모습 속 기병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기병에 대해 남긴 구술과 편지 등을 분석해 그의 기병운용술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투 속에서의 기병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²⁾

“프랑스군 보병은 두 줄 또는 세 줄의 횡대로 편성되어 있고 전방에는 다수의 척후병들(skirmisher)이 차장(screen)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대기하고 있던 포병은 화력으로 적을 괴롭히며 이 때 포병의 목표는 보병 및 부대 지휘관들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측면 공격을 위해 측면에 있는 적에 대해 종사(enfilading fire)⁴³⁾을 실시한다. 적의 전방 횡대가 포병화력 및 척후병에 의해 감소되면 프랑스 보병대대들은 종대대형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척후병은 지속적으로 화력을 유도한다. 진출하는 보병중대의 측면과 후방은 기병을 통해 보호하고 반대로 기병은 기마포병(horse artillery)의 보호 하에 이동한다. 보병중대가 총검으로 적을 압박하고 만약 이런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지속한다. 적들이 무질서해질 때 기마포병에 의해 보호받는 기병이 공격하여 적을 궤멸시킨다.”

42) Telp, op. cit., p.50.

43) 횡대를 이루고 있는 적 보병부대에 대해 측면에서 사격을 하게 되면 종적인 사격이 되기 때문에 종사라고 표현됨.

다음은 나폴레옹이 전투현장에서 구술하고 주고받은 편지 등을 통해 나타난 나폴레옹의 기병운용은 다음과 같다.⁴⁴⁾

- ① (49장, 기병의 보호(Protection of Cavalry)) 소부대에서 보병과 기병을 혼합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병은 보병 때문에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병도 기병이 떠나고 난 뒤 고립되기 때문에 전투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기병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보병이 측방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② (50장, 기병의 돌격(Cavalry Charges)) 기병의 돌격은 전투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 어느 때나 가능하다. 기병 돌격은 항상 가능하지만 전투중인 보병부대 측면에서 운용시 더욱 효과적이다. ③ (51장, 기병의 추격(Cavalry Pursuit))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전과를 확대하고 적의 재편성을 방지하는 것은 기병의 임무이다. ④ (52장, 기마포병(Horse Artillery)) 기병은 자체 방어를 위한 화력이 없고 오직 사브레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병에게는 보병보다 포병이 더 중요하다. 기병과 포병의 상호 의존이 이러한 결점을 보완한다. 따라서 기병은 공격, 집결, 진지 배치 등을 불문하고 반드시 포병과 연합해야 한다.

위 내용들을 통해 나폴레옹의 기병운용은 크게 3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유럽에서 기병운용의 목적은 부대방호(screen), 정찰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기병운용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적 부대에 대한 돌격으로 보았다.⁴⁵⁾ 나폴레옹은 섬멸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술적 수준에서 적 부대를 강하게 타격하여 적 방어전열을 무너뜨리고, 전과확대 및 추격을 통해 적을 전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병돌격을 활용하기로 생각한 것 같다. 이에 따라 기병의 가장 큰 장점인

44) 나폴레옹, 앞의 책, 190~197쪽.

45) 1812년 러시아 원정 이후 군마보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병의 수가 감소하자 나폴레옹은 이전 전투에서 기병을 통해 실시한 전략적 정찰을 포기한다. 그 이유는 돌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병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Vuksic et. al., op. cit., p.33.). 이를 통해 볼 때 나폴레옹은 돌격을 기병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기동력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흉갑 등으로 무장해 방호력을 극대화하여 적에게 가능한 많은 기병이 돌진하도록 하였고 소총에 의한 공격보다는 사브레, 랜스와 같은 직접 타격무기를 운용하여 살상력을 극대화하였다.⁴⁶⁾ 그리고 나폴레옹은 기병돌격의 대상을 적 보병, 기병, 포병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보병부대에 대해서는 정면보다는 측면에서 돌격하는 방법을 선호하였고 전투 초기 생존성 보장을 위해 야전방 보병부대 후방에 기병을 배치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폴레옹을 군사적 천재라 칭송한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는 나폴레옹전쟁을 경험한 이후 기병 돌격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⁴⁷⁾

“적절한 방어지역을 공격할 때는 보병과 포병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고, 보병이 이미 전투를 실시하고 있을 때 기병 단독으로 돌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은 기병돌격의 시점과 효과성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투 전 기병돌격은 보병과 기마포병의 지원이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고 전투 중 기병돌격은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대 편성시 기병은 보병과 혼합편성하지 않고 단일병종으로만 편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물론 부대 규모가 소규모라는 전제가 있지만 보병과 함께 편성될 경우 기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기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나폴레옹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병의 단점인 방어력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기병의 측방 보호를 위해 보병부대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적절한 수의 보병부대를 기병진출로 측방에서 이동시켜 측면에서 공격하는 적을 차장하였다. 두 번째 방안은 기마

46)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2장 1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47) *ibid.*, p.34.

포병을 편성해 기병돌격 전, 중, 후 지원사격을 통해 적의 반격을 약화시켜 기병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다. 이 방안의 추가적인 장점은 기병이 적 부대를 향해 돌격을 할 때 근접지원사격으로 적 부대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⁴⁸⁾

셋째, 나폴레옹은 기병운용의 부차적인 목적을 부대방호(screen)⁴⁹⁾, 정찰, 추격 등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본진 전방 및 측방에 배치 및 운용하여 적정을 살피고, 주요 기동로 상태를 확인하고, 후퇴하는 적에 대해 신속한 추격을 하여 적을 격멸하는 등의 임무에 기병을 적절히 운용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폴레옹은 각각의 임무에 맞게 특성화된 기병부대를 양성 및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전과확대와 추격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1807년 이후에는 빠른 기동력과 보병부대에 대한 파괴력을 보유한 랜스기병을 중용한다. 또한 정찰임무를 위해서는 원거리 공격이후 빠른 이동이 가능하도록 카빈이나 권총으로 무장한 용기병을 적절히 활용하였다.⁵⁰⁾ 이와 같은 점은 고대로부터 야전전투의 최강자였던 기병이 화약무기 발달 이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시기 기병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임무에 특화된 기병을 양성하려는 나폴레옹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나폴레옹 기병운용술의 3가지 핵심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직접 수행한 전투에서 실제 기병을 어떻게 운용하였으며 그것이 전투승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48) 나폴레옹은 기병 군(사)단에 포병을 편제에 반영하였으며 기병의 기동력을 감안하여 말이 끄는 기마포병을 조직해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마포병은 사람들이 직접 끄는 포병에 비해 가벼운 포(1.8kg 또는 2.7kg)를 장착하였다 (Bruce et. al., op. cit., p.116).

49) 울름전투(Battle of Ulm, 1805)에서 나폴레옹은 'Black Forest'라 불리는 대규모 수풀 지대에 뮌헨이 지휘하는 기병군단을 배치시켜 오스트리아군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단을 수풀지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울름북방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섬멸하였다(Jarymowycz, op. cit., pp.79~80).

50) 1806년 나폴레옹이 라이프치히(Leipzig)로 진출할 때 뮌헨이 지휘하는 선봉정찰대로 輕기병 3개 여단과 용기병 2개 사단을 편성하였다(ibid., p.33).

4. 주요 전투에서의 기병운용과 승패에 미친 영향

1) 아일라우전투(Battle of Eylau, 1807)

(1) 전투상황 속 기병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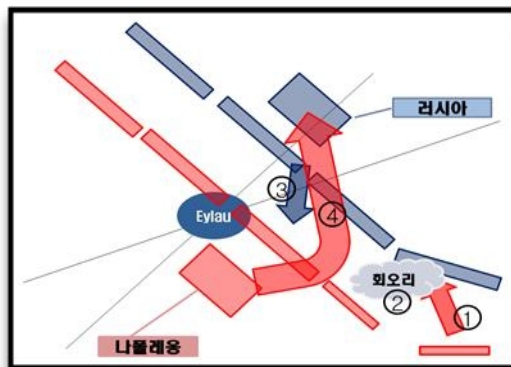
아우스터리츠전투(Battle of Austerlitz, 1805)⁵¹⁾와 예나전투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을 구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폴란드지역까지 진출하자 나폴레옹은 1807년 2월 8일 아일라우 근처에서 전투를 준비하였다. 나폴레옹은 전투 초기 다부(Louis-Nicolas Davout, 1770~1823)의 제3군을 러시아군의 좌익으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다부의 제3군이 효과적인 공격을 하여 러시아군 좌익일부에 균열이 생기자 나폴레옹은 러시아군 좌익 중앙에 오주로(Pierre Augereau, 1757~1816)의 제7군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거대한 눈보라가 전장을 뒤덮자 오주로의 제7군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었다. 눈보라가 잠잠해지자 오주로의 제7군은 러시아군 포병대에 자신의 우측면을 노출시켰고 기회를 포착한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였다. 그 결과 1시간 만에 오주로를 포함한 약 5,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프랑스군 중앙에 거대한 간격이 발생하였다.⁵²⁾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러시아군 지휘관 베닝젠(Levin Bennigsen, 1735~1826)은 보병과 기병 예비대를 프랑스군 간격에 투입시켰고 나폴레옹은 위기에 처하였다. 나폴레옹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병 예비대 지휘관인 뮈라(Joachim Murat, 1767~1815)⁵³⁾에게

51) 아우스터리츠전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593~602쪽.).

52) Bruce et. al., op. cit., pp.77~78.

53) 뮈라는 1787년 기병으로 복무를 시작하였으며 1792년 루이 16세의 근위대로 활동하였으나 그해 10월에 흉갑기병이 되었다. 매사에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차있던 그는 1795년 10월 나폴레옹과 처음 만났고 1796년에는 네의 기병 예비대 지휘관으로 활약하였다. 1800년에 나폴레옹의 여동생 캐롤라인(Caroline Murat, 1782~1839)과 결혼하였으며 1804년에는 원수로 승진하였다. 러시아 전역 이후 1813년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뮈라는 자신의 왕국인 나폴리로 도망을 쳤다. 1815년 나폴레옹이 복귀하자 뮈라는 나폴레옹에게

프랑스군의 중앙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을 공격 목표로 부여하였다. 무라는 제2흉갑기병사단, 제1, 제2, 제3용기병사단, 근위기병사단을 소집하여 돌격을 개시하였다.⁵⁴⁾ 돌격 명령이 하달되자 프랑스 기병 예비대는 신속하게 돌격을 감행하여 접근해 오는 러시아군 보병대와 용기병연대를 전멸시켰다. 그리고 본진에서 방어 중인 러시아군 보병대대를 향해 공격하여 방어진형을 와해시켰다. 그러나 후방에서 대기 중인 러시아군 예비대



〈아일라우 전투 상황도〉

인 보병대와 기병대가 프랑스 기병 예비대를 측면에서 포위하였으나 프랑스 기병 예비대의 충격력은 러시아의 방어력보다 강했고 무라는 기병부대 대형을 변화시키면서 포위망을 뚫고 적 후방으로 계속 진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맨 후방에 위치한 포병대를 격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전 전선에 걸쳐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었다. 날이 저물자 전투는 소강상태가 되었고 네의 제6군이 프랑스군 쪽으로 근접해 오면서 러시아군이 철수하여 아일라우전투는 종료되었다.⁵⁵⁾

(2) 승패에 미친 영향

이 전투는 나폴레옹 기병운용의 전형(全形)이었다. 첫째, 무라가 지휘

다시 지휘관으로 자신을 중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나폴레옹은 이를 거절하였다(David Chandler, *Dictionary of the Napoleonic Wars*, pp.294~295).

54) 약 80개 기병대대 및 근위기병대로 편성된 약 만7천여 기병이 제파식 공격을 준비하였고 이는 사상 최대의 기병돌격으로 평가되었다(그레고리 프리몬-반즈, 토드피셔, 앞의 책, 143쪽.).

55) David R. Stone, *A Military History of Russia*(California: Praeger, 2006), p.99.

하는 기병 예비대의 돌격은 시기상 전투 중에 이루어졌으며 대상도 적 기병부대로 매우 적절하였다. 그리고 돌격 이후 적 보병부대에 의해 일부 포위가 되었으나 러시아군 보병이 완벽한 방진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군 기병은 돌격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출하여 적 후방 포병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둘째, 부대 편성에 있어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병부대와 혼합된 편성을 하지 않고 기병단독으로 편성하였다. 당시 상황은 프랑스군 중앙에 간격이 발생하였으며 러시아군이 기회를 포착하여 예비대가 돌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느린 보병보다는 기병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기마포병을 대동하지 않았던 점이 교리상 과오로 볼 수 있으나 당시 상황상 기마포병의 사전지원 후 돌격하는 것은 반격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전술적 융통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나폴레옹은 반격을 위해 군단급 수준의 대규모 기병부대를 조직하였고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단일 지휘관의 지휘 하에 운용되도록 하였다. 즉, 규모적·지휘 통제적 측면에서 기병운용을 전술적 수준에서 작전적, 전략적 수준으로 향상시켰는데 이것은 나폴레옹전쟁 이전 전쟁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유럽 내 적국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에서도 기병은 연대규모로 보병 군(사)단의 예비로서만 임무 수행하는 등 전술적 수준에만 머물렀다.⁵⁶⁾ 프랑스군 기병 중 약 1,5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아일라우 전투에서 프랑스군 기병 돌격이 의미없는 자원낭비이며 기병을 오용하였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연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전투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폴레옹의 전술적 판단과 군단급 수준의 역습을 기병 예비대를 통해 성공시켰다는 사실이다.

56) 나폴레옹 전쟁을 경험하면서 기병을 작전적, 전략적 수준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느낀 유럽 각국은 기병군(사)단을 조직하였다. 1811년 러시아는 흉갑기병으로 구성된 두 개의 기병사단과 3개의 코사크군단을 조직하였고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1814년 기병군단을 조직하였으나 프랑스와 달리 독립지휘관 하에 운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과 같은 기병운용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Jarymowycz, op. cit., p.72. p.33).

2) 소모시에라 전투(Battle of Somosierra, 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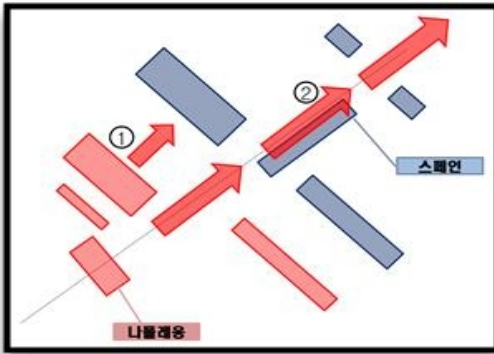
(1) 전투상황 속 기병운동

밀라노 칙령⁵⁷⁾을 통해 영국을 고립시키기로 한 나폴레옹의 의도가 에스파냐에서의 내부분란으로 어렵게 되자 나폴레옹은 에스파냐를 직접 공략하였다. 1808년 나폴레옹은 네, 솔트(Nicolas-Jean de Dieu Sault, 1769~1851), 마세나(Andre Massena, 1758~1817) 등과 같은 지휘관과 함께 마드리드로 향하기 위해 피레네산맥 정상의 소모시에라 마을로 진출하였다.⁵⁸⁾ 11월 29일 나폴레옹은 산맥의 중턱부터 정상까지 도로를 따라 중심으로 배치된 포병과 보병을 발견하게 되고 러핀(Francois Ruffin, 1771~1811)의 보병사단으로 공격하였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도로, 중심 깊게 배치된 에스파냐군 때문에 쉽게 전진 할 수 없었고 나폴레옹은 피레(Hippolyte Pire, 1778~1850)에게 중기병을 활용한 공격을 시켰으나 좌절되었다.⁵⁹⁾ 이에 그는 코이제툴스크(Jan Koziatulsk, 1761~1821)(폴란드 랜스기병대대의 지휘관)에게 공격을 명령하였다. 프랑스 기병부대가 코이제툴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으나 그는 기다리지 않고 폴란드 랜스기병 1개대대를 4열

57) 영국에 대한 봉쇄를 위해 나폴레옹은 1806년 11월 ‘베를린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프랑스뿐 아니라 동맹국, 조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의 항구에 영국 상선이 입항하지 못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1807년 12월 영국과 통상하는 상선의 나포명령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부국가에게 반발을 샀고 특히 영국과 전통적 동맹 국가였던 포르투갈은 영국 물품에 대한 밀수를 지속 시행하였다(그레고리프리몬-반즈, 토드피셔, 앞의 책, 355~362쪽.)

58) 이베리아반도는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시에라 모레나(Sierra Morena)의 황무지까지 척박한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다. 국토 대부분이 산맥과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낙후된 도로망으로 인해 프랑스군의 강점인 대규모 기병의 돌격전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었다(이용재, 「나폴레옹 전쟁과 에스파냐 ‘궤양」 『동국사학』 제49집, 동국대학교 사학회, 2010, 404~405쪽.). 특히, 이 글에서 제시된 소모시에라 지역은 기병이 우회할 수 없는 단일한 도로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레네산맥의 중턱에서부터 정상까지 에스파냐군이 중심방어를 실시하였다.

59) 피레가 나폴레옹에게 에스파냐군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자, 나폴레옹은 “불가능? 나는 그 말에 의미를 모른다(Impossible? I don't know the meaning of the word)”라고 답하였다(Bruce et. al., op. cit., p.92).



〈소모시에라 전투 상황도〉

중대로 배치하여 폭이 좁은 도로를 따라 신속하게 공격하였다. 에스파냐군의 포병과 머스켓이 지속적으로 발사되자 폴란드 램스기병의 선두가 저지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폴란드 램스기병들은 멈추지 않고 신속히 공격을 하였으며 에스파냐군 포

병 및 보병부대를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었다. 폴란드 램스기병은 에스파냐군 방어전방의 보병부대 일부를 돌파하였고 이후 계속 돌파를 시도하여 결국에는 정상까지 올라 에스파냐군 방어의 균형을 흔들었다.⁶⁰⁾ 그리고 러핀의 보병사단과 프랑스군 기병대가 폴란드 램스기병대를 후속하여 에스파냐군의 중심 깊은 방어를 붕괴시켰다.

(2) 승패에 미친 영향

이 전투는 그 동안 나폴레옹이 보여준 기병운용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였다. 기병돌격이 보병부대 간 전투로 혼란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 측방, 후방에 대한 공격도 아니었고 적 기병 및 포병부대에 대한 공격이 아닌 보병부대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기병운용의 위대성은 이 전투를 통해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작전지역은 폭이 좁은 도로를 중심으로 저지에서 고지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지형이었다. 그리고 적은 지연전을 위해 도로 중심으로 중심 깊게 방어부대를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나폴레옹은 기존 중기병은 기동속도가 느려 적에게 근접하기 전에 적 보병과 포병공격에 많은

60) Bruce et. al., op. cit., pp.9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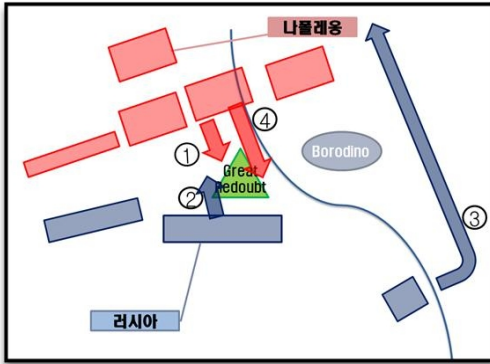
피해를 입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랜스로 무장해 보병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장갑을 두르고 있지 않아 기동속도가 뛰어난 폴란드 랜스기병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즉, 나폴레옹은 동일한 임무라 할지라도 지형과 기상 등 주변 요소를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부대를 선정해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를 사전에 준비해 전투에 참가시켰다. 둘째, 공격부대를 편성하면서 폴란드 랜스기병 단독으로 편성해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프랑스 기병과의 조합은 폴란드 랜스기병이 갖고 있는 특성을 무디게 하여 극대화된 전투력을 제한할 수 있었다. 즉 같은 병종이라도 각 기병만의 특별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혼합 편성할 경우 효율성이 반감될 수 있었다. 셋째, 돌격하는 기병을 보호하며 확보된 지형을 확보 및 붕괴된 적을 소탕하기 위해 보병부대를 후속공격시켰다. 만약 후속부대의 적절한 공격이 없었다면 폴란드 랜스기병이 어렵게 확보한 기동로가 폐쇄되고 폴란드 랜스기병이 고립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상황에 부합된 기병운용의 모를 통해 나폴레옹은 소모시에라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마드리드로 진격할 수 있었다.

3) 보로디노 전투(Battle of Borodino, 1812)

(1) 전투상황 속 기병운용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시 러시아군 주력을 조기에 섬멸하려 했지만 러시아군이 지연전을 펼쳐 좌절되었다. 그러나 국내여론 악화로 조기 결전을 결심한 러시아군은 모스크바 서쪽 30km 지점인 보로디노 근처에서 방어를 준비하였다. 작은 언덕과 하천, 나무로 우거진 지역인 보로디노는 상대적으로 경무장한 러시아군에게는 유리하고 중무장한 프랑스군에게는 불리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전선 중앙에 3개의 보루를 만들어 프랑스군 공격에 대비하였다. 9월 7일 새벽 프랑스군 13만 명, 러시아군 12만 명이 약 5마일에 걸쳐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전투가 시작

되었다.⁶¹⁾ 나폴레옹은 네의 제3군과 다부의 제1군에게 러시아군 중앙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다부의 제1군은 특히 3개의 보루에 병력을 집중하여 공격을 하였다. 그 중 가장 남쪽에 있던 보루를 점령하지만 러시아군 중기병이 반격하여 다부의 제1군 보병대대를 파괴하였다. 이후 다부의 제1군은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전투시작 1시간여 만에 보루 3개를 모두 점령하였으나 러시아군의 반격에 의해 모두 다시 빼앗겼다. 이때 외젠(Eugene de Beauharnais, 1781~1824)의 제4군(프랑스군 좌익)이 보로디노를 점령하여 가장 북쪽에 위치한 소위 대보루(Great Redoubt)⁶²⁾를 측방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자 네와 뮐라는 러시아군을 와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나폴레옹에게 전갈을 보내 황제 근위대(예비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전선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고⁶³⁾ 이때 프랑스군 좌측에서 러시아군 기병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찰대의 보고를 받자⁶⁴⁾ 나폴레옹은 네와 뮐라의 전갈에게 황제 근위대를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기병예비대를 러시아군 기병의 공격방향으로 보내 측방보호에 주력하였다. 러시아군 기병 공격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나폴레옹은 대보루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획한다. 이에 외젠의



〈보로디노 전투 상황도〉

러시아군을 와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나폴레옹에게 전갈을 보내 황제 근위대(예비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전선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고⁶³⁾ 이때 프랑스군 좌측에서 러시아군 기병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찰대의 보고를 받자⁶⁴⁾ 나폴레옹은 네와 뮐라의 전갈에게 황제 근위대를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기병예비대를 러시아군 기병의 공격방향으로 보내 측방보호에 주력하였다. 러시아군 기병 공격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나폴레옹은 대보루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획한다. 이에 외젠의

61) David, op. cit., p.104.

62) 전쟁 후 프랑스인들에 의해 “Great Redoubt”라고 불리게 되었다.

63) 당시 나폴레옹은 심한 고열과 감기로 인해 병상에 누워 있어 전장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Christopher, op. cit., p.345).

64) 당시 러시아의 플라토프(Platov Matvei Ivanovich, 1751~1818) 장군은 나폴레옹의 좌측방과 후방의 병참선을 위협하기 위해 輕기병을 운용하였다(Bruce et. al., op. cit., p.106).

제4군이 측방에서 공격하고 중앙에서는 기병사단, 2개의 흉갑기병 연대가 선두에서 요새를 향해 돌격을 감행하고 다부 제1군의 제1, 제3보병사단이 후속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군도 요새 안에서 방진을 형성하고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프랑스군은 3개 흉갑기병연대와 3개 보병사단을 추가로 투입하여 요새를 점령할 수 있었다. 이때 러시아는 2개 기병군단을 투입하여 러시아군 본진 전방이 붕괴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⁶⁵⁾ 이 시기에 프랑스군 전방 지휘관들은 나폴레옹에게 러시아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근위대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나폴레옹은 이 요구를 묵살하였다.⁶⁶⁾ 결국 해가 지고 러시아군이 모스크바 방향으로 후퇴하면서 보로디노 전투는 종료되었다.

(2) 승패에 미친 영향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기병운용은 전술적 수준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작전적, 전략적 수준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나폴레옹은 적 방어진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병돌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장에 있는 3개의 보루는 러시아군 방어진형의 중심(Center of Gravity)라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보병부대의 지원과 기마포병의 적절한 지원으로 보루를 공격하였다. 후속하는 보병부대 지원이 없어 확보한 지역을 내주었지만 연이은 공격으로 보루를 확보할 수 있었고 러시아군 진형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 특히 대보루 지역은 가장 치열한 난타전(dog-fight)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기병의 대규모 돌격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감, 압박감을 받은 러시아군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러시아군 기병이 측방 우회공격 시에 나폴레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동력이 있는 기병을 투입하여 측방을 보호하고 러시아군

65) David, op. cit., p.105.

66) 근위대 공격(전과확대 또는 추격)이 무산되면서 러시아군은 더 큰 피해없이 모스크바 방향으로 후퇴할 수 있었고 프랑스군은 결정적 승리의 기회를 놓쳤다. 나폴레옹은 그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부대로써 근위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근위대를 움직이지 않았다(그레고리 프리몬-반즈, 토드피셔, 앞의 책, 292쪽.)

기병을 격퇴시켰다. 만약 기병이 아닌 보병을 투입했다면 반응시간이 늦었고 적절하지 못한 전술적 판단이었을 것이다. 러시아군 기병의 접근이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은 피해없이 자신의 병참선과 우측을 보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전술적 수준의 기병운용은 성공적이었으나 이것을 작전적, 전략적 수준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병운용이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나폴레옹은 대보루가 무너지고 있을 때 끝까지 자신의 근위대(기병예비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기병예비대에 전과확대 임무를 부여하였다면 전과확대뿐 아니라 아우스터리츠, 예나전투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섬멸전도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되었다면 러시아군 주력은 보로디노에서 섬멸되었고 모스크바 점령 이후 나폴레옹이 후퇴를 할 때 러시아군이 빠르게 프랑스군을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4) 워털루 전투(Battle of Waterloo, 1815)

(1) 전투상황 속 기병운용

1815년 황제로 복귀한 나폴레옹은 영국 중심의 동맹국들과의 전투를 위해 군대를 재모집하였고⁶⁷⁾ 6월 15일 벨기에 국경을 넘었다. 이때 프로이세군 소속의 전초부대와 프랑스군이 일부 접촉하였으나 나폴레옹은 기병의 차장(screen)을 통해 부대를 3개로 나눌 수 있었다. 6월 16일 카트르-브라전투((Battle of Quatre-Bras)⁶⁸⁾와 리니전투(Battle of

67) 당시 프랑스군은 128,000명, 야포 366문으로 구성되었다. 기병편성은 각 군단 내에 輕기병과 中기병사단, 기병예비대에는 감소편제의 4개의 기병군단, 근위대에 2개의 기병사단이 있었다(David Chandler, *Waterloo-The Hundred Days*(London: Osprey Publishing, 1998), pp.52~53). 당시 부대의 세부적인 편성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Ray Johnson, *Napoleonic Armies*(London: Arms and Armour Press, 1984), pp.38~41).

68) 네는 웰링턴군의 방어진형을 파괴하기 위해 3차에 걸쳐 기병대의 중앙돌격을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군 방어진형이 일부 붕괴되었으나 기병은 돌격 이후 방어력이 전무해 영국군의 반격이 실시된 이후 차지한 지역을 지켜낼 수 없었다. 그 결과 네의 계획은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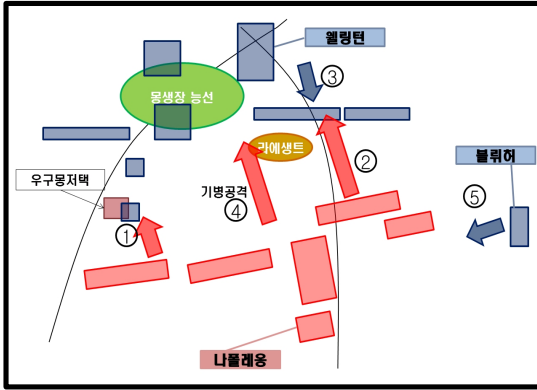
Lyni, 1815)에서 양측은 성과없이 전투가 종료되었고 18일 워털루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은 서쪽으로 19km 떨어진 프로이세군을 견제하기 위해 구르시(Emmanuel de Grouchy, 1766~1847)의 1개 군단을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7만 2천 명으로 감소한 병력과 함께 웰링턴군이 방어⁶⁹⁾하고 있는 몽 생장 능선 쪽으로 이동하였다. 11시 30분 프랑스군의 야포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자 레유(Honore Charles Reille, 1775~1860)의 제2군단 보병대가 전선의 중앙에 위치한 우구몽 저택을 공격하였다.⁷⁰⁾ 성과 없이 끝난 이 공격을 뒤로하고 에를롱(Drouet de Erlon, 1765~1844)의 제1군단이 제4기병군단의 일부 기병연대를 지원을 받아 웰링턴군의 우측 중앙을 향해 공격하여 방어진형을 일부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때 웰링턴군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국군 용기병 7개 연대가 반격하여 프랑스군을 격퇴시켰다.⁷¹⁾ 오후 4시 두 번째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 네는 보병과 포병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5,000여 기병으로 구성된 40개의 기병대대를 이끌고 능선에 위치한 영국군 보병을 향해 돌격하였다. 그러나 잘 조직된 보병방진에 대한 기병의 돌격은 소모적 행동에 불과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병대 돌격의 충격은 약해져 갔고 방진 내 보병들이 갖는 심리적 공포감은 사라져 갔다. 나폴레옹은

되었다. 이 전투는 프랑스기병 돌격의 파괴력과 한계를 보여주었는데 제파식 기병돌격은 당시 영국군의 방진을 격파할 수 있었지만 후속하는 보병과 포병이 확보한 지역에 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기병은 신속히 후방으로 이동해 다음 임무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보병과 포병의 지원없이 기병단독으로 차지한 지역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Bruce et. al., op. cit., pp.119~129).

69) 프랑스군 보병 49,000명, 기병 15,750명, 야포 246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웰링턴군은 총 68,000여 명으로 그 중 3분의 1만이 영국군이었으며 보병 50,000명, 기병 12,500명, 야포 156문을 보유하고 있었다(Chandler, *Dictionary of the Napoleonic Wars*, p.481).

70) 우구몽저택에 대한 프랑스군의 집착은 워털루 전투 전체를 보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저택에 대한 공격을 위해 프랑스군은 13,000명을 투입하였으나 영국 근위대는 2,000명으로 방어에 성공하여 다른 지역에서 프랑스군이 집중할 병력의 부족을 초래하였다(Chandler, *Waterloo-The Hundred Days*, pp.133~139).

71) 이때 웰링턴군 기병의 1/3이 파괴되었지만 방어정면을 고수할 수 있었다. (Jarymowycz, op. cit., p.85)



〈워털루 전투 상황도〉

네의 기병돌격으로 균열이 생긴 영국군 방어 진형을 레유의 제2군단 8천 명을 포병지원 아래 투입하여 공격하지만 이미 시기를 상실하였다. 오후 5시 30분 블뤼히어의 전위부대인 제4군단 일부가 프랑스군 우측으로 접근해 오

자 나폴레옹은 마지막 예비대인 근위대 7개 대대로 저지를 시도하였다. 이때 네가 웰링턴 군 중앙에 일부 균열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근위대의 지원을 요청하지만 이미 근위대는 우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오후 7시 전선의 중앙에서 프랑스군과 웰링턴군의 지루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프로이세군이 프랑스군 본진으로 이동해 오면서 프랑스군은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2) 승패에 미친 영향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기병운동은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그가 보여준 기병운동의 원칙이 거의 무시되었다. 첫째, 네의 기병돌격 시기는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방향이 문제였다. 네가 선택한 돌격방향은 웰링턴군의 보병부대 정면이었기 때문에 기병대의 피해가 컸고, 기동로는 우구몽 저택과 라 에 생트 라 불리는 농장 사이의 협소한 공간으로 옥수수밭과 진흙탕길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기병이 본연에 속도를 내면서 공격할 수 없었다.⁷²⁾ 기병의 돌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넓은 횡대대형을 이루고 전속력으로

72) 제프리 우텐, 김홍래 역, 『워털루 1815』, 플래닛미디어, 2007. 132쪽

질주(gallop)해야 한다. 하지만 네의 오판으로 기병돌격을 위한 적절한 방향과 기동로가 올바르게 선정되지 못했다. 둘째, 편성자체는 기존 전투와 동일하게 기병 단독으로 편성하였지만 기마포병, 보병부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형태의 방진을 형성하고 있는 보병부대에 대한 돌격은 무모하였다.⁷³⁾ 그리고 기병 돌격시 보병부대의 후속이 없어 차지한 지역에 대한 확보 및 전과확대가 어려웠다.⁷⁴⁾ 셋째, 군마부족으로 인한 기병의 질적 저하가 돌격력을 약화시켰다. 과거부터 프랑스는 유럽 내 주요 군마 생산국이 아니었다. 나폴레옹 등장 이후 프랑스군은 유럽 내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동시에 군마 징발을 실시하여 기병을 강화하였다. 특히 러시아 전역을 준비하면서 나폴레옹은 2만 여필에 말을 구입하고 프랑스와 중부유럽 내 각국에서 군마 징발을 계속하여 95,000명의 양질의 기병을 양성할 수 있었다.⁷⁵⁾ 하지만 러시아 전역 실패로 기병의 급격한 감소와 점령국 대부분이 전쟁터로 바뀌면서 기병 확충을 위한 군마 생산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1813년부터 기병 양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기병 전술의 다양성과 파괴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1813년부터 1814년까지 나폴레옹은 주요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⁷⁶⁾ 1815년 나폴레옹이 다시 등장하고 군마수입을 늘렸으나 정예기병을 얻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 결국 과거의 기병보다 질적으로 저하된 기병의 돌격은 전술적 운용의 패착과 함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⁷⁷⁾

73) *ibid.*, p.148.

74) 찬들러는 워털루전투 패배의 원인을 나폴레옹의 심리적, 육체적인 요소(리더십, 참모조직)와 조직, 무기, 전술적인 요소(병력집중, 기후문제 등)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육체적 능력 저하로 인해 실책했던 국면 중 하나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돌격하는 기병을 선정하였다(Chandler, *Waterloo-The Hundred Days*, pp.187~190).

75) 리처드 홉즈, 위의 책, 36쪽

76) 1813년 라이프치히전투(Battle of Leipzig) 초기 교착상태가 진행되자 뒤라는 기병 10,000명을 돌격시켜 오스트리아 보병군단을 무너뜨렸으나 오스트리아 기병예비대의 반격으로 추가적인 진출이 제한되었다. 이후 프랑스 흉갑기병이 재차 오스트리아군의 측면을 공격하였으나 추가적인 기병예비대 부족으로 전과확대를 할 수 없었다(Ellis, *op. cit.*, p.143).

77) Vuksic et. al., *op. cit.*, p.33.

5. 맺음말

유럽 내 기병강국이 아니었던 프랑스는 나폴레옹 등장 이후 각고의 노력을 통해 기병강국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나폴레옹은 기병이 갖는 고유한 장점에 주목하였으며 전술적 임무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병운용술을 발전시켰다. 첫째, 나폴레옹은 기병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돌격을 통해 적을 붕괴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효과적인 돌격을 보장하기 위해 기병부대는 보병과 혼합편성하지 않고 단일 지휘관에 지휘를 받는 독자적인 부대로 양성하였다. 셋째, 기병돌격 간격 방어부대를 와해시키고 돌격 이후 방어력 부재를 극복하고자 기동성을 갖춘 기마포병을 함께 편성하고 측방에서 보병부대가 방호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동일한 임무도 전장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병대를 준비하고 임무를 부여하였다. 다섯째, 기병은 보병에 비해 빠른 반응속도와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융통성을 갖고 운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병의 전술적 운용을 통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주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황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기병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기병 역사에 큰 군사적 업적을 남겼다. 첫째, 18세기 화약무기 발달로 인해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기병을 다시 전장의 정면에 등장 시켰다. 이를 위해 그는 임무에 맞게 기병의 종류를 분화시켰다. 정찰, 추격, 본진에 대한 보호 등에 임무는 중기병과 輕기병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기병돌격을 통한 적 방어진형을 돌파하는 임무는 重중기병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나폴레옹은 흉갑기병을 창설하였고 랜스기병을 증용해 그의 기병전술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을 끼워 맞췄다. 둘째, 기병운용을 전술적 수준의 제대 규모에서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보병이 없이 기마포병에 지원을 받는 기병군단을 창설해 기병을 대규모로 집중 운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럽 내 다른 국가는 시도하지 못한 작전적, 전략적 기동과 공격이 가능

하도록 기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셋째, 1815년 이후 화약무기의 획기적인 발달로 대규모 기병 돌격이 무력화되면서 기병은 수색 및 정찰 임무에만 운용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병이 갖는 유용성을 찾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전차가 전장에 주역이 되는 2차 세계대전까지 기병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넷째, 나폴레옹의 대규모 기병돌파 전술은 기병의 대체물인 전차가 출현하고 제2차 세계대전시 대규모 전차부대의 돌파전술이 탄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나폴레옹의 군사적 업적 중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근대시기 기병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기병병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란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나폴레옹, 전술, 기병, 중기병, 경기병, 용기병, 아일라우, 소모시에라, 보로디노, 워털루

<ABSTRACT>

A Study of Napoleon's Cavalry Tactics

Joo, Jung youl

The advent of Napoleon was a turning point in the war history. Tactics and war principle he established became the basis of the current military theory. However, one military achievement that has not been noticed for a long time is the return of the cavalry as a leading force in the battlefield, which had been in decline after the development of gunpower weapons. The main object of this paper is to see the application and the effect of the cavalry used by Napoleon, focusing on the art of his cavalry operations.

Before the French Revolution, the French cavalry relatively lacked both quality and quantity compared to the other cavalries in Europe. Nevertheless, thanks to Napoleon, the French cavalry was able to hold its leading position in Europe. Napoleon especially focused on the intrinsic advantages that cavalry holds, and by reflecting from his concerns and experiences, he developed his own cavalry operation methods. Based on these new methods he was able to win the battle of Eylau, the battle of Somosierra and battle of Borodino. However in the battle of Waterloo, his decision not to follow the principle rules in his cavalry management methods had lead to defeat.

Through this article, I hope that more attention could be paid on cavalry operation, and wish that more studies will be conducted on modern cavalry operation.

Key words : Napoleon, tactics, cavalry, heavy cavalry, light cavalry,
Dragoon, Eylau, Somosierra, Borodino, Waterloo